



남원시, 모두가 행복한 민원 서비스 실천 다짐

남원시는 8일 오전 최경식 남원시장과 민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한 친절을 다짐했다.

이날 다짐에서는 2025년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최경식 시장을 특별강사로 초빙했으며, 최 시장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소한 친절 하나로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민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작은 인사나 밝은 미소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민원인에게 좋은 기억을 남게 하고 이런 이미지는 남원시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민원실 직원들은 친절 구호를 외치며, 2025년 새로운 마음으로 친절할 남원 만들기를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축협, 나눔 실천 동행기금 물품 전달

남원축협(조합장 한정석)이 지난 2일 다같이동행기금 약 500만원 상당의 물품(내의)을 지역 고령자들에게 전달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 실천을 진행했다.

다같이동행기금은 다같이동행예금 연도말 평점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농민 실익 증진이나 사회공헌사업에 활용된다.

한정석 조합장은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농업인에게 이웃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며,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예술공장, 무주군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 문화예술공장 강유빈 대표가 8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곳은 지난 2023년도에도 장학금(1백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관내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공방 (재능기부)에서 DIY와 토탈공예 수업 등도 진행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강유빈 대표는 "무주에 정착해 살면서 그간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용지면 이장단협의회, 성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장단협의회가 지난 6일 추운 겨울을 함꼐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별히 임기가 만료되는 다수의 이장들이 마지막까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굴하는데 의미를 더했으며, 이장단협의회는 매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온 41개 마을의 이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강상문 이장 협의회장은 "임기를 마치며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로 용지면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과 선행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장단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이장님들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단협의회는 올 한해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활동과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여객기 참사 애도·성금 기탁

비나텍, 직원들로 구성된 비나미래나눔재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에 총 2000만원 전달

비나텍(주) (대표이사 성도경)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비나미래나눔재단(이사장 주영진)은 지난 5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주)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애도하며 기부금 2000만원을 모금하여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증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경제도 어려운데 전북도 내에 거주하는 희생자도 6명이나 되고 179명이나 되는 다수의 희생자로 인해 전 국민의 마음에 심한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등 우울 현상에 작은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비나미래나눔재단은 비나텍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나눔 재단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손길을 펼치는 선한 시민의 역할을 하는 나눔 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소속 회원들은 매월 급여액의 1%를 저축하여 불우이웃에게 재정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비나텍(주)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전북도 내에 몇 안 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인 슈퍼캐패시터와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개발



하여 생산하는 첨단 기업이다.

슈퍼캐패시터는 에너지저장, 차량용 스마트 가전 통신 보안장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비나텍에서 생산하는 중성형 슈퍼캐패시터는 국내 1위는 물론이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비나텍(주) 성도경 대표이사는 "이번 무안공항의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희생되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 수습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현장 관계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부안군에 장학금 1000만원 쾌척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지난 7일 부안군 근능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산림조합에 보내주시는 군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다"며 "부안의 학생들이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능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동참해 주시는 오세준 조합장과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부안형 장학사업을 실천해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지도, 임산물 유통, 산림자원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산림 생산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총 1억 550만원 가량을 기탁해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선정... 현판 제막식

남원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해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2013년과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25개 지자체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지난 12월 16개 지자체에 대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으며, 남원시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남원시는 8일 시청 현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시민참여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갖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더 행복한 남원을 비전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제막사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성별과 관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하며, 이번 지정을 발판으로 지역 정책 결집과 집행에 있어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성평등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 등, 김제시에 장학금 기탁

김제시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에 지역 사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8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김제시 환경미화원 봉사단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재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김제시장학재단을 통해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청림과 일손 돕기 등의 현장 봉사와 저소득층 물품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김제시 환경미화원 봉사단 이정훈 단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환경미화원과 시민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학재단 이사장은 "연이은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나눔 정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시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 대통령 표창 수상

군산시는 지난 7일,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산 식품관리 분야'에서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경연대회에서 '지역기업육성 분야' 우수기관표창(군산시)에 연이은 수상이다.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안전관리 유공 정부 포상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관련 협회 등 단체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군산시 박동래 과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 △채만금 수산식품수출공공 종합단지(4만평 규모) 조성 및 민간 기업 유치 등의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군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시민 건강·안전, 수산물 소비위축 극복에 총력을 다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설봉환 에스엠피 대표 등,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주)에스에스엠피 설봉환 대표와 (주)아이제이엔지 니어링 이철기 대표가 8일, 남원시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총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설 대표와 이 대표는 남원시에서 태양광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두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두 대표는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라는 선행을 통해 좋은 기운을 얻게 된 것 같다"라며, "기부금이 남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으며, 남원시 관계자는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은 남원시 미래주요인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에 사용, 남원 지역발전의 디딤돌을 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읍 의용소방대연합회, 성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김용찬·여성회장 윤정순)는 8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윤정순 무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해주고 싶다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모두 27명 화재 및 안전 사고 현장에서 소방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반딧불축제 등 지역행사에서는 청결 운동과 교통 정리에 나서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20년 전부터 소화가 기부와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무주읍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보건소, '할 수 있다 건강한 체력 UP'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놀이를 접목한 유·무산소 신체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한 영양상담으로 '할 수 있다 건강한 체력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2024년도 꿈자람 건강 JUMP 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체성분 검사를 진행, 건강위험군 중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지역 거점공공병원에서 소아대사증후군을 검사한 결과 지방간 건비대, 당노전단계 등이 나와 아동·청소년의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보건소는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체력 측정을 실시한 후 주 2회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등 교육과 체험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생활 실천력을 강화해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개선하고, 건강체중 유지로 자신감 회복 등 정신적·신체적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